[주] 하랑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 673-2900

전남도민일보

24시 굿모닝 보석 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 촉진/뛰어난 발한효과
각종 노폐물 배출!
첨단 중앙로 152번길 31 T.062) 973-0365

제2495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3월 9일) 2020년 4월 1일 수요일

광주시의 긴급생계 지원금,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과 별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따라 30~50만원 지급

광주상생카드 발급… 오늘부터 시청 홈페이지 등 접수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23일 발표했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어제(3.30)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당초대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 발표 시점인 3월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신청시기 및 방법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대책과는 별개로 내일(4.1)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4월1일~5일까지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인터넷(광주시청 홈페이지)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4월6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지급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50만을 지급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됩니다. (카드 수령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구에 직접 전달 예정).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발급(한국조폐공사) 등으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 통과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1,400만 가구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8:2로 분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5월 중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4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고의 해결책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광주시는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 실천과 함께 종교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집단감염 차단에 힘을 모으는 한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행정명령(3.29)을 발동하여 지역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입국자들이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마련한 통로로 이동하여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대기된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고(3일간 의무 시설격리, 진단검사 실시) 이 밖의 해외 입국자들은 자차를 이용해 귀가 후 2주간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협력으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 발표

해외 입국자 전원 임시검사시설에 2~3일간 격리, 진단검사 실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전남에서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감염을 원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발표를 통해 "이번 10번에서 13번 총 4명의 확진자 중 3명은 해외 입국자며, 1명은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10번 확진자는 순천 거주 40대 남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영국에서 근무 후 지난 29일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들어와 해외입국자 전용 KTX로 순천 도착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현재 순천시가 자체 운영한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이다. 11번 확진자는 무안 거주 90대 여성으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다. 30일 양성으로 판정된 서울 거주 다섯째 아들이 지난 23일부터 3일간 본가에서 거주, 모친인 이번 확진자도 접촉자로 통보돼 진단검사 후 양성 판정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해 입원 조치했다.

12번 확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0일까지 영국에서 거주한 20대 여성이다. 30일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해 여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결과 양성 판정돼 순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13번 확진자는 12번 확진자 지인으로 스페인 국적 20대 남성이다. 12번 확진자와 영국에서 함께 입국해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김 지사는 "최근 해외 입국자를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3월 2일 이후 모든 입국자의 자진신고·진단검사를 이행토록 했다"고 말하고 "4월 1일부터 지역 전파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해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임시검사시설에서 2일에서 3일간 격리하고 입국부터 14일간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해외 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 시 전용 KTX를 이용해 중서부권은 나주역, 동부권은 순천역에서 하차, 셔틀버스를 통해 임시검사시설에 입소시킬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市, 권역별 대기오염 총량관리

3일부터 시 전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3%↓ 목표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관리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4월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시 전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체, 자동차,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배출원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크게 사업장,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오염원의 경우 경유차,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속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시설 등 생활오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인증된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토록 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에서 2024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으로 16㎍/㎥까지 배출농도 33%를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춤형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